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초등부 대성전) , 19:00	
			06:30 (새 벽)	10:30 (교 중)
			10:3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 년)	
	평일		06:30 (새 벽)	19:00(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알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미사 재개 지침
 - 재개일 : 8월 9일 ~ 당분간
 - 참례 가능 신자 : 본당 신자, 공간별 10%
 - 미사 후 성체 분배 없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봉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게시종교와 자연종교의 다른 점은?

- 게시종교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심
- 자연 종교 :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법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불교나 유교)
- 미 신 : 자연속의 정령(토데미즘), 무생물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에니미즘), 우주에 널리 가득차 있는 신적 존재를 믿는(범신론)

2021년 견진성사 (10월 16일,토,11시)

- 대 상 자 : 중 20이상, 2021년 5월 이전 세례 받은 신자
- 교리기간 : 8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8주간)
- 일 시 : 매주 금요일 19:40~20:40
- 신 청 비 : 20,000원
- 8월 19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다음 주일(08/22)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2구역
------	------	-----	------

고3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

- 접수기간 : 8월 15일 ~ 8월 22일
- 접 수 : 윤영내 아녜스 010-7900-3096

우리들의 정성(07월07일 ~ 08월10일)

교 무 금	27,911,000원		
주일헌금	7,878,300원		
시설헌금	유OO15만원	이길자10만원	김정배10만원
	김인기30만원	김OO 5만원	
감사헌금	정명수 5만원	전을경10만원	김도현10만원
	이길자 5만원	임옥순10만원	박주형10만원
	심상운 5만원	김시아 3만원	김성만 5만원
	정영자 1만원	김교자 5만원	최은화 5만원
	이병남 5만원	김수자10만원	손상순 5만원
	이인자 5만원	황정후 5만원	강성주 5만원
	유OO 10만원	이복영10만원	박경순10만원

거리두기 4단계 구역별 주일미사 참례 시간 및 안내 사항

	토요주일 19:00	새벽 06:30	교중미사 10:30	주일 낮 12:00	주일저녁 19:00
08/15	16~20 구역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08/22	21~24 기타구역	1~ 5 구역	6~11 구역	12~15 구역	16~20 구역

- 마스크를 코와 턱이 덮이도록 꼭바로 착용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평화방송으로 미사 참례합니다.
- “X”로 표시한 자리는 비워두고 앉지 않습니다.
- 개인이 사용한 주보는 가져갑니다.
- 추후 알림 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와 주일 밤 9시 미사는 없습니다.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8/15	박혜선	조홍환	김영균	최웅조 정재경
08/22	손진희	하재민	도현만	장익근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9:00
08/15	최상남	최창열	박형순	오광운	김광수 박승환
08/22	최석준	김인기	이성일	이운영	김영배 박용환

* 돈보스코 오라토리요 학생 및 봉사자 모집 *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61.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해 주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의 끊임없는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탈출 22,20).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탈출 23,9)

“너희 땅에서 이방인이 너희와 함께 머무를 경우,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레위 19,33-34).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명 24,21-22).

형제애를 향한 부름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시 힘차게 울려 퍼집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갈라 5,14).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1요한 2,10-11).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1요한 3,14).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1요한 4,20).

62. 이러한 사랑의 제안도 잘못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폐쇄적이고 고립된 집단을 이루려는 유혹에 빠진 것을 보고 바오로 성인은 제자들에게 서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1테살 3,12) 사랑을 지니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요한의 공동체는 ‘형제들, 특히 낯선 이들마저도’(3요한 5참조)환대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이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사랑은 다친 형제가 어디 출신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분열시키는 사슬을 끊고 그 자리에 다리를 놓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대가족을 이루게 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연민과 존엄의 향기를 풍깁니다.”